

위기의 양돈산업 성장에너지를 찾자



윤봉중 회장
축산신문사

양돈산업의 생산규모는 3조8천억 원에 달한다. 이같은 수치는 단일품목으로는 1차산업 가운데 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국내 양돈산업은 그야말로 비약적인 성장을 일궈냈다. 그러나 축적된 역량이 확대재생산과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재투자가 미약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양돈산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요즘 들어 이처럼 낙관적 인식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한미 FTA가 타결되자 양돈산업이 가장 피해가 크다는 인식과 함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패배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위기의 양돈산업

왜 이와 같은 비관론이 제기될까?

이미 타결된 한미 FTA와 함께 중국, EU와의 FTA마저 줄줄이 이어져 궁극적으로 외국산 돈육의 무관세수입이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곡물가격이 경영을 압박하는가 하면 이른바 4P를 비롯한 각종 질병의 만연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분뇨처리를 비롯한 제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도 비관론의 주원인이다.

한미 FTA는 그동안 성장일변도를 구가해온 우리 양돈산업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수의 양돈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이 매물로 나오는 현상이 한미 FTA 타결이후 눈에 띄게 가라 앉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런 현상은 양돈산업의 재편을 부를 개연성이 충분한 것이다.

이처럼 국내 양돈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요인들은 하나같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고 쌀 다음으로 덩치가 큰 양돈산업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양돈현안 해결위해 힘과 지혜 결집해야

우선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고 그야말로 새판을 짜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양돈업은 혐오산업이라는 외부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산업계가 뜻을 모아야 한다. 파리, 모기가 들끓고 냄새가 나는 농장을 소비자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로 바꾸는데 양돈인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농장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농지진입이 가능한 표준돈사모델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개정된 농지법이 7월4일부터 발효되어 농지에 돈사를 지을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 하지만 농지진입이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거나 중구난방으로 이뤄진다면 어렵게 성사된 농지법개정은 공염불로 그칠 개연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이를 양돈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농지진입이 환경친화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모델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분뇨처리문제도 양돈업계가 서둘러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분뇨처리를 해양배출에 의존하는 것은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훌륭한 비료자원인 분뇨는 바다에 버릴게 아니라 농작물 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양돈농가가 자경농지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분뇨를 사용할 경종농가를 확보하는 길외에 달리 방도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경종농가는 양돈인들에겐 고객인 것이다.

경종농가가 분뇨를 사용,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토록 유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지만 범양돈업 차원의 노력이 보태져야 함은 물론이다. 가령 액비를 살포해서 생산한 쌀을 비롯한 농작물이 차별화된 브랜드가 되도록 장려하고 액비를 사용하는 농가에 과거 화학비료에 보조를 해주었듯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분뇨처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만 시간은 무작정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다.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각종 양돈현안을 해결하려면 우선 양돈인들이 사소한 이해관계를 떠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규모에 걸맞게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가그룹은 물론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양돈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중의 하나다. 그리고 수입개방이란 단순히 돼지고기만이 개방되는 것이 아니고 위생, 안전성을 포함한 식문화 전반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쨌거나 생산기반과 유통, 양돈인들의 의식이 국제수준에 섰을 때 한국양돈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본다.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한국양돈의 미래는 본질적으로 양돈인들에게 달려 있다. 이것이 양돈업계가 환골탈태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양돈업계가 스스로 달라져야 정책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양돈**